



동곡농협 사업계획서 무시 “의혹 투성” 매입·매각·신청 “조합원 기망 행위”

광주 광산구 동곡동 동곡 농협 이등운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는 로컬푸드 설치를 위한 토지를 구입하겠다고 사업계획서(예산 35억 원/8,250평방미터)도 없이,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로컬푸드 사업장 부지 매입안을 통과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한 후 농림축산식품부·광주광역시청·광산구청에는 비 시범 포용 부지 매입이라며 허위로 허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지 취득 승인을 받았다.

동곡농협은 이미 건축허가(로컬푸드사업장)가 불가능한 복룡동 123-1번지를 20년 1월 이사회 승인없이 사전매입(후 승인)했고, 21년10월에 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복룡동 123-2,3,4번지의 농지를 1년 10개월만에 당시 시세보다 비싸게 또 구입해 수많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농협 등 농업생산자 단체는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시험, 연구, 실습, 묘목 생산 목적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득 목적은 농업 경영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농협이 농지를 매입할 때에는 농업경영과 구체적으로 연결되거나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지는 서류의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도 지사로부터 농지 취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동곡 농협이 개발제한구역인 농지를 매입하여 로컬푸드 사업이나 창고를 건설하려고 할 경우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설정된 지역으로, 이곳에서 건물을 짓거나 개발 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로컬푸드 부지매입에 관련된 사항들을 동곡 농협 김순옥·유영중감사는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조합원 A씨(남/65)는 동곡농협 조합장과 이사들이 개발제한구역인 농지를 매입하여 로컬푸드 사업이나 창

고를 건설하는 데 앞장섰다면, 이러한 행동이 조합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조합의 자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조합장과 이사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만약 이들이 조합원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조합원들은 이사회회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조합장과 이사의 사임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매입한 부지는 쉼터 등 매립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었던 농지로 사실 조차 파악하지 않고, 비 시범포 사업장으로 허가나 승인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어, 특별감사 결과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동취재부

지 면 안 내

▶대통령실 정무 우상호·민정 오광수·홍보 이규연 임명	3면
▶“유골함 침수 5·18묘지 2묘역, 정비 해법은 ‘1·2묘역 통합’	9면

11년 만의 광주 시내버스 파업, 운행률 70%대... 시민 불편

광주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1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5일 출근길 시민들이 일부 혼선을 빚었으나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없었다.

현재까지 버스 운행률은 7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 광주지역 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노사 간 임단협 3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직후 첫 차 운행 시각을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오후부터 날을 꼬박 새며 진행됐던 지방노동위원회 임단협 3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월급 8.2% 인상과 65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만성 적자 등을 이유로 임금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은 지난 2014년 6월 이후 11년 만이다.

노조 소속인 시내버스 운수회사 9곳 중 2곳은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운수회사 7곳은 근무일이 아닌 버스 기사 등을 투입해 운행률을 70~80% 수준으로 유지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1000여 대 중 700여 대가 운행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버스 기사 중 1075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1300여 명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근길 교통 대란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늘어났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파업에 따른 불편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이따금 버스 도착 알림 전광판에 띄워진 도착 예정 시간을 보고 의문스런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묵묵히 버스를 기다렸다.

그러나 파업 소식을 미처 알지 못한 시민들은 당초 시각보다 버스가 정류장에 늦게 도착하자 크고 작은 혼선을 빚었다.

도시철도 1호선 금남로 4가역에는 역사 곳곳에 버스 파업에 따른 지하철 증편 운행 안내문이 붙었고, 평소보다 많은 승객이 몰렸다. 버스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일찍 출근하며 볼 뎨 소리를 내는 시민도 있었다.

한 도심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

9곳 중 2곳 파업 마동참, 7곳 70%대 운행률
 배차간격 늘고 ‘만원 버스’에 출근길 발동동
 버스기사 “불편 끼쳐 죄송” “하루빨리 타결을”
 시 대체기사 투입, 지하철·택시 운행 횟수 ↑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5일 오전 광주 북구 월출동 시내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다. 노사 협상 결렬로 광주 시내버스는 11년 만에 파업에 돌입, 노선별 운행률이 평소의 60~7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뉴스시스

도착 알림 전광판이 통신 접속 불량률 이유로 먹통이 됐다. 한 간선 버스에는 배차 지연으로 승객이 한꺼번에 탑승하면서 ‘만원 버스’가 됐다. 버스 안이 혼잡하자, 기존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앞문으로 하차하기도 했다.

파업 돌입 관련 사전 안내에 소홀했던 시를 향한 쓴 소리가 있었다. 광주시는 버스 노사 협상 결렬로 파업이 현실화되기 직전인 오전 5시에야 안전 안내 문자로 버스 파업 사실을 알렸다.

버스 공영 차고지 곳곳에는 멈춰 선 버스가 눈에 띄었다. 버스 기사들은 조속한 노사 합의를 바랐다.

50대 기사 A씨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버스 기사들 역시 마음이 불편하지만 처우 개선이 시급한 만큼 넓은 마음으로 양해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년 넘게 일한 시내버스 기사 B씨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기사 개인도 파업에 동참하면 급여가 그만큼 차감돼 손실이 상당하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기사들 역시 생계에 지장이 있다”면서 “생계를 위해 운행에 나선 동료 기사들의 마음도 이해한다”고 했다.

광주 버스 노조는 이날 오후 3시께 광주 시청에서 총파업 결기 회의를 열었

다. 조합 추산 버스기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광주시와 사측이 버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 교섭 요구안에는 답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왜곡 여론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우선은 사측과 합의에 이를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버스를 정상 운행한다.

연휴 사흘간 사측과 점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10일부터 재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기간 중 광주시는 비상수송 대책반을 운영한다. 출·퇴근 시간 도시철도와 택시 운행률을 높이기도 했다. 도시철도의 경우 출·퇴근 시간과 오후 10시께 각 4차레, 총 12차레 운행 횟수를 늘렸다. 택시도 출·퇴근시간 집중 배차한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입차 버스 투입도 검토한다. 버스 감축 운행으로 바뀐 노선과 시간표는 광주시 버스운행정보 시스템과 빛고을콜센터1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도일 기자

창간 9주년을 축하합니다

구례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

구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구례사랑상품권
 -구례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이플로도 가능해요

국민 신한

i-ONE Bank 하나

기업 하나

QR코드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기부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세액공제까지!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고향사랑e음 접속 및 가입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

답례품 주문하기

전국NH농협 방문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주문하기

문의 구례군 총무과 061-780-2307